



# 왕건이네 가정의 밤

**안**양 스테이크 안산 와드의 이재철 감독과 유미희 자매는 자녀가 다섯입니다. 늘 민음직한 첫째 호건이, 씩씩한 둘째 대건이, 동생을 잘 돌보는 하은이, 명량한 채은이, 그리고 이제 백일인 막내 왕건이까지 모두 귀엽고 예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은 다름 아닌 월요일, 가정의 밤 시간입니다. 발 크기가 아빠 손바닥만큼도 안되는 왕건이도 가정의 밤 시간만큼은 뭐가 그리 신나는지 울지도 않고 곧잘 눕니다.

지난 12월 10일 월요일에도 왕건이네 집은 어김없이 가정의 밤을 했습니다. 장남인 호건이가 의젓하게 사회를 하고 네 살 난 채은이의 기도로 가정의 밤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빠는 개회가 끝나자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퀴즈식 공과가 시작된 것입니다. 책 표지에 나온 사람이 누구이고 몇 살 때 하나님의 시현을 보았는가라는 아빠의 질문에 아이들은 너도나도 손을 듭니다. 왕건이도 덩달아 들썩들썩 신을 냅니다. 아빠의 공과는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길 바란다."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아이들은 한 목소리로 아멘을 외칩니다.

공과가 끝나면 활동 시간입니다. 활동은 쿠키 만들기. 공과 시간 내내 무릎 꿇고 경건 자세를 유지하던 대건이와 호건이, 그리고 몸을 비비꼬던 하은이와 똥굴똥굴 구르던 채은이까지도 모두 활력이 넘칩니다. 쿠키 만들기라는 엄마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릇이며 재료를 챙기는 아이들의 모습이 제법 능숙해 보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활동이라 그런지 대건이와 호건이는 재료를 붓는 엄마에게 참견이 끊이지 않습니다. 덩달아 하은이와 채은이도 주걱과 그릇을 들고 분주합니다. 점점 걸쭉해지는 반죽처럼 왕건이네 집은 웃음과 사랑이 섞이며 떠들썩해집니다. "오늘은 이웃들 줄 거니까 예쁘게 만들어야 해."라는 엄마의 말에 아이들은 수저 모양에서부터 하트 모양까지 신나게 쿠키를 만듭니다. 이윽고 쿠키가 다 구워졌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하나씩 들고 먹기 시작합니다. 막내 왕건이는 신기한 듯 쿠키를 바라봅니다. "너희들이 다 먹으면 누구를 주니?"라는 엄마의 말에도 아랑곳없이 계속해서 쿠키를 먹던 아이들은 천진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왕건이네 집에서는 또 다시 커다란 웃음이 터집니다.

이날 가정의 밤은 "하은이 자매님이 기도를 해 주시고 가정의 밤을 마치겠습니다."라는 호건이의 마지막 말로 끝이 났습니다. 폐회 후에는 다들 쿠키를 챙겨두고 이웃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인 유미희 자매는 가정의 밤을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가정의 밤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가족 경전 읽기를 하면서 "이게 가정의 밤이란다."라고 가르쳐주고, 친척집을 가야하거나 불가피하게 장을 봐야 할 때도 "이게 가정의 밤 활동이야."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정의 밤이 무엇인지 잘 모르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정의 밤을 기다리게 되었답니다. 유미희 자매는 "거창하게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끼리 하나까 즐겁다'라는 걸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아빠인 이재철 감독은 "아이들이 어려서 (가정의를 하는 것이) 힘들 때 예전 감독님인 이혜근 형제님께서 저희 가족을 자주 초대해서 가정의 밤에 대한 모범을 보여 주셨어요. 그 가정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죠."라고 말합니다.

막내 왕건이를 돌보느라 엄마가 아이들의 등교를 챙겨주지 못할 때도, 아이들은 현관에 모여서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는 걸 빼먹지 않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정의 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의로운 유산을 물려주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합니다. 왕건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누나 채은이처럼 뛰어놀 수 있을 때쯤엔 왕건이네 가정의 밤은 더 시끌벅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만큼 더 행복할 것입니다. 왕건이의 웃음소리가 더해질 테니까요. ■ <기사, 사진 제공: 황미주 자매>



# 2007년 한국 지역 스테이크 대회

지난 2007년 11월 17일과 18일은 한국 지역의 모든 스테이크와 지방부에서 스테이크 대회 및 지방부 대회가 열렸다. 이번 스테이크 대회는 2년에 한 차례,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본부에서 하는 말씀을 위성 방송으로 함께 듣는 한국 지역 스테이크 대회로 치러졌다. 점점 커지는 교회 규모에 발맞춰 위성 방송을 통해 보다 많은 회원들에게 제일회장단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계획된 이 모임은 2005년에 처음 시작됐다.



위성 방송을 시청하는 서울 스테이크 회원들



모임 후 환담을 나누는 마산 스테이크 회원들

**올** 해로 2회째인 한국 스테이크 대회는 제일회장단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감리하는 가운데 칠십인 제일정원회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의 사회로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자신들의 스테이크 혹은 지방부 건물에 모인 성도들은 한날 한 시에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첫 연사는 기꾸찌 장로였다. 그는 개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며 “고요한 기도를 위해 자신만의 성스러운 장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본인에게 바로 그런 장소는 “소속 와드의 오래된 예배당”으로써 “성스럽고 평화로운 주님의 집에서 그분의 영을 느끼게 된다.”라고 간증을 전했다.

두 번째 연사로 연단에 오른 수잔 더블류 테너 본부 청년회장은 2007년 6월에 한국을 방문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말씀을 시작했다. 테너 자매는 용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면서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용기는 다른 모든 덕목들이 시험 받을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말로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연사인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때가 충만한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사는 위대한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후기에 복음 회복의 중요한 요소인 성전과 그 안에서 행해지는 구원의 의식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며 성전 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을 전했다. 헤일즈 장로는 또한 “한국은 지금 여러분의 충실함으로 인해 성전을 가지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성전은 한국에 있는 교회 회원에게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축복입니다.”라고 말씀했다.

마지막 연사로 연단에 선 제일회장단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인사로 말씀을 시작했다.

다. 몬슨 회장은 이어서 기꾸찌 장로와 테너 자매, 그리고 헤일즈 장로에 대한 일화를 언급하며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음에 기쁘다고 덧붙였다. 그런 후, 몬슨 회장은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라고 말씀했다. 또한 몇 가지 개인적인 제언을 드린다고 말씀하며 경청과 인내, 배움과 행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십일조를 바치라는 간단하지만 힘 있는 진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몬슨 회장은 “우리가 그분의 노크를 들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그분, 즉 주님이시오, 구주이신 그분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말로 한국의 성도들을 격려했다.

이날 모임 중 특색 있었던 것은 앞서 나온 세 명의 연사가 말씀의 마지막에 모두 한국어로 간증을 전했다는 사실이다. 정확하지 않은 발음이었지만 세 연사가 전하는 영과 함께 한국 성도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한편, 토요일 모임은 각 스테이크와 지방부 별로 진행되었다. 서울 스테이크에서는 ‘신교 사업’이란 주제로 회원들의 간증을 듣는 방식으로 토요일 저녁 모임을 진행했고, 서울 강서 스테이크는 ‘표준을 높이라’는 주제로 토요일 저녁 모임을 가졌다.

이틀간의 한국 지역 스테이크 대회 동안 한국의 모든 스테이크와 지방부는 사랑과 영으로 넘쳤다. 커다란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모습은 진지하고 영적이었으며, 또한 아름다웠다. ■

〈곽채림 기자, 김민정 기자, 김연화 기자〉

# 서울 남 스테이크 동작 와드 청년들의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는 청소년 상호 향상 모임의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의 다양한 상호 향상 모임 사례들을 모아 일 년 동안 연재할 계획이다. 그 첫 번째로 서울 남 스테이크 동작 와드를 찾았다.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표준에 맞는 치마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요즘에 동작 와드 청년들은 표준에 맞는 치마를 직접 만들었다.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동작 와드 청년 상호 향상 모임을 소개한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10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서울 남 스테이크 동작 와드 청년들의 특별한 상호 향상 모임에 찾아갔다.

오후 2시가 되자 청년 회장단이 양손에 한 가득 짐을 들고 들어섰다. 짐을 받아 든 청년들은 그 짐을 풀어보느라 모



임을 시작해야 하는 것도 잊었다. 청년 회장단이 들고 온 것은 따뜻한 겨울을 떠올리게 하는 체크무늬로 된 모직 천과 재봉틀이었다. 2주 후에 있을 “청년 창립 기념행사” 전시 부문에 널 작품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물건들이었다. 재봉틀과 천을 확인하고 한껏 들뜬 청년들은 작품 제목인 ‘표준에 맞는 치마’를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동작 와드 청년 회장단이 ‘표준에 맞는 치마 만들기’라는 상호 향상 모임을 떠올린 것은 청년 창립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다. 청년 회장단은 기념행사에 전시할 동작 와드 청년들만의 작품을 구상하던 중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표준에 관해 언급된 내용을 떠올렸다. 짧은 치마가 거리에 넘치는 요즘, 청년들이 표준을 이해하면서 따뜻하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치마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청년 회장단이 치마 만들기를 처음 제안했을 때, 청년들은 대부분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의논

을 하고, 면밀하게 준비를 한 끝에 청년들은 새로운 시도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되었다.

일단 치마를 만들겠다고 마음먹었지만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만만치 않았다. 청년 창립 기념행사까지는 2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기한이 턱 없이 부족했고, 재봉틀로

무언가를 만들어 본 경험자가 없다는 것도 어려움이었다. 그때 동작 와드 청년들과 회장단이 생각한 것이 바로 철저한 준비였다.

청년 회장단과 청년들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찾았다. 인터넷의 한 홈페이지에서 표준에 맞는 길이면서 유행에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디자인을 발견했고, 치마의 도안을 홈페이지 운영자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만드는 과정 하나 하나가 자세히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의지하여 드디어 치마를 만드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모임 당일, 청년 회장단이 준비한 따뜻한 느낌의 천과 재봉틀을 가지고 청년들은 본격적인 치마 만들기에 들어갔다. 먼저, 공과 교실 바닥에 청년들이 고른 천을 한 가득 펼쳐 놓고 도안대로 그리고 잘랐다. 순조롭게 시작은 했지만 경험자가 없었기에 예기치 못한 실수가 끊이지 않았다. 그 중 하나가 치마를 도안대로 자르고 나서야 알게 된 ‘시첩 방향.’ 천을 시첩 방향대

# 치마 만들기



로 잘라야 울이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잘라 버린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재봉틀을 막상 사용하려는 순간 재봉틀이 오래된 탓에 실을 끼우는 방법을 아무도 몰랐던 황당한 상황도 연출이 되었다. 그야말로 좌충우돌 힘든 순간들이었지만 동작 와드 청녀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치마를 만들어갔다. 그 덕분인지 뜻밖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다. 가족 강화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에 온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재봉틀에 실을 끼우는 법과 재봉틀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다. 재봉틀을 다루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을 유심히 지켜 본 청녀들은 훨씬 자연스럽게 천을 이어 붙이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법 치마 모양이 만들어졌다. 더불어 청녀들의 표정도 점차 진지해졌다. 자신들이 치마를 만드는 것이 성스럽고 영화로운 주님의 표준을 따르는 일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김지혜 자매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시중에 판매하는 옷들 중에 예쁜 치마가 많기는 하지만 표준에 맞는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단정한 치마를 파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치마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걱정하기도 했지만 표준을 따를 수 있고, 게다가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 기대되었습니다.”

또한 김지혜 자매는 상호 향상 모임에 대해서 “청소녀와 고문

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우정을 키울 뿐 아니라 신앙 또한 증진 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간증을 전했다.

동작 와드 청녀 회장인 한아름 자매는 치마 만들기라는 활동을 통해서 “청녀들이 앞으로 옷을 구입할 때도 표준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자신의 바람을 전했다. 그리고 동작 와드 청녀들에게 “회장단과 청녀들이 함께 발전해 나가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사랑을 전했다.

치마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다. 재봉틀을 처음 만져보는 청녀들이 치마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작 와드 청녀들은 치마 만들기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깨달았다. 치마를 만드는 일처럼 표준을 지키는 것 또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열매는 달다는 사실을 청녀들은 알게 되었다.

이제 동작 와드 청녀들의 치마가 무릎 위로 올라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잘 준비된 한 번의 상호 향상 모임이 동작 와드 청녀들을 표준으로 인도했다. ■

〈기사, 사진 제공: 이상미 자매〉



# 일어나 빛을 발하라

2007년 11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대부도에서 진행된 '제2회 전국 청년 독신 문화 축제-전국 청년 독신 영상제'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후기 성도 젊은이들의 뜨거운 신앙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전국 청년 독신 문화 축제'는 한국에 사는 후기 성도 청년 독신들의 재능을 발전시키고, 건전한 교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된 모임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영상제'라는 제목에 걸맞게 청년 독신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를 감상하는 시간으로 후기 성도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전국의 신권 지도자들이 함께했다.

모임은 길영권 인천 스테이크 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됐다. 힘찬 개회 선언 뒤 연단에 선 지역칠십인 이용환 장로는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화내지 않는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라는 말씀을 통해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을 환영했다.

뒤이어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인 최윤환 장로가 아내인 구분경 자매와 함께 '영원한 결혼'이라는 주제로 청년 독신들

에게 말씀을 전했다. 아내와 데이트를 하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씀을 이끌어간 최윤환 장로는 "완벽한 배우자를 찾으려 하지 말고 빛이 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청년 독신들은 재미있는 비유와 사례, 그리고 시청각자료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즐거워했다.

다음 순서는 감리자로 참석한 북아시아 지역 회장인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장로 부부의 말씀이었다. '인생의 여정에서 배운 교훈들'이라는 주제로 에번즈 장로 부부가 전한 것은 선교사업, 교육, 결혼, 봉사, 인내의 다섯 가지 원리. 시청각자료와 함께 진행된 말씀에서 에번즈 장로는 "이번 영상제가 여러분에게 결정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을 거듭 강조했다. 에번즈 장로의 말씀을 들은 부산 종교 교육원의 최훈기 형제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삶에 적용해야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라고 간증을 전했다.

후기 성도 청년 독신들을 영적으로 고양시켰던 말씀이 끝난 후, 본격적인 영상제의 막이 올랐다. 우렁찬 박수와 함께 시작된 영상제는 젊은이들이 준비한 노래와 연주, 그리고 사물놀이 등이 그 서막을 장식했다.

열띤 공연이 끝난 후, 영상제의 첫 작품을 소개하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장내를 울렸다. 첫 순서는 광주 종교 교육원이 제작한 영화 '리턴.' 교회를 떠났던 한 청년이 친구의 사랑으로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는 내용의 감동적인 이 영화는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다음 순서는 서울 동 종교 교육원의 '내 안의 빛을 찾아서.' 영화를 연극처럼 만든 이 독특한 작품은 교회 안에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위로하는 한 편의 따뜻한 코미디였다.

세 번째는 중부 종교 교육원의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가 관객을 찾았다. 15분이라는 짧은 분량의 이 영화는 놀랍게도 클레이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다. 이 작품은 등장인물들



왼쪽부터: 통역을 담당한 백길환 형제,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장로, 최윤환 장로와 구분경 자매



을 손수 만들고 한 동작 한 동작씩 움직여가며 촬영한 중부 종교 교육원 청년들의 노력과 수고로 완성됐다.

‘양 한 마리’라는 제목으로 상영된 네 번째 작품은 서울 서 종교 교육원이 제작했다. 선교사를 인질로 잡은 은행 강도가 개종하기까지의 이야기를 풀어낸 이 영화는 빼어난 화면과 편집, 그리고 연출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실제 은행을 빌려서 찍어낸 경찰과 강도의 대치 장면은 긴박감 넘치는 화면 구성으로 여느 영화 못지 않은 재미를 선사했다.

마지막은 부산 종교 교육원이 제작한 로맨틱코미디 ‘아름다운 기적’이 장식했다. 시종일관 발랄하고 즐거운 장면과 대사로 진행된 이 영화는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유쾌하게 그려 많은 공감을 얻어냈다.

모든 영화가 끝난 후 무대에 오른 에번즈 장로는 “여러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아주 즐거운 날을 보냈습니다.”라는 말로 지난 일 년 간 노력하고 수고한 청년 독신들에게 찬사를 보냈다. 광주 종교 교육원의 영화 제작에 참여했던 이경민 형제는 이 경험이 다시는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영화를 만들면서 청년들 사이에서 사랑과 우정, 그리고 변하지 않는 간증을 느꼈다.”고 밝혔다.

전국의 청년 독신들이 함께하는 시간은 안식일이었던 11일까지 계속됐다. 청년 독신들을 위한 특별 성찬식이 마련 된 것이다. 600여 명의 참석자들을 위해 18명의 신권 형제들이 일제히 성찬 전달을 하는 것은 한국 교회 역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었다. 서울 서 종교 교육원의 이인주 자매는 “다함께 성찬 전달을 하는 모습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라고 성찬식에서 느꼈던 간증을 전했다.

마지막 연사로 연단에 선 에번즈 장로는 선택과 결정에 대해 말씀했다. 그는 선교 사업과 결혼 등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대로 결정하고 선택

해야 한다는 원리를 가르쳤다. 또한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것이고, 저와 제 가족의 삶에서 그것이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라고 말씀하며 순종이 주는 축복과 기쁨에 대해 강조했다.

성찬식이 끝난 뒤 신권회와 상호부조회 합동 모임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에번즈 장로는

청년들의 질문에 대해 관련된 교리와 원리를 설명하고,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기도 하면서 올바른 가르침을 전했다. 특히 경전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유지하는가라는 질문에 “보통 하루에 한 시간씩 경전을 공부하는데, 경전을 읽지 않으면 외로운 날이 됩니다.”라고 말하며 매일 경전 공부 할 것을 권고했다.

즐겁고 흥겨웠던 전날과 달리 안식일 모임은 영적이고 성스럽게 진행됐다. 서로가 서로의 간증과 영을 느낄 수 있었던 이 안

식일 모임은 부산 종교 교육원이 준비한 합창처럼 그야말로 “오 사랑스러운 아침”이요, “큰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다.

최윤희 장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청년 독신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했다. “개인은 연약할지 모르지만 함께 할 때 강해집니다. 그래서 부부가 있는 것이고, 친구가 있는

것이고, 청년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또한 에번즈 장로는 “주님의 영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라고 말씀하며 이 땅의 모든 청년 독신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일 년 동안 이번 모임을 준비했던 서울 서 종교 교육원 김대영 형제의 다음 소감은 전국 청년 독신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직까지 이 땅에 저희 후기 성도 청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영향력은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독신들이 함께 해서 복음의 원리와 교리를 배우고 우정을 나누는 이런 모임을 통해서 저희들의 간증과 영을 증진시켜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브리검 영-하와이 대학교 휠라이트 총장 방한 노변의 모임**



지난 2007년 12월 4일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에서 스티븐 시 휠라이트 브리검 영-하와이 대학교 총장과 그의 아내 마가렛 휠라이트 자매, 그리고 입학처장인 메하 형제와 함께 하는 특별 노변의 모임이 있었다. 평일인 화요일 저녁이었음에도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모임은 북아시아 지역회장단의 최윤희

장로가 감리했다.

연단에 선 휠라이트 자매는 중국과 일본 등 여러 아시아 지역을 다녔던 지난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 모든 경험이 축복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준비시켜 주셨다.”는 간증을 전했다.

마지막 연사로 연단에 오른 휠라이트 총장은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유타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 후, 그는 하버드 경영 대학과 스탠포드 경영 대학원에서 교편을 잡으며 학생들과 오랜 세월 함께 호흡을 했고, 경영 대학의 부학장이자 출판 사업 책임자로 한창 역량을 발휘하던 때인 2006년 8월에 하버드 경영 대학원에서 은퇴했다.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곧 주위의 만류에 부딪혔다. 휠라이트 형제는 교회를 우선으로 하는 가치관을 바꾸라는 동료들에게 “나는 내 가치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던 당시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그는 또 “저에게 있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은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사명이다.”라는 간증을 전하며 주님의 일을 우선할 것을 강조했다. 2000년에서 2003년까지 영국 런던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고, 브리검 영-하와이 대학교 총장으로 부름 받기 전까지 부부 선교사로 봉사한 휠라이트 형제와 자매는 다섯 명의 훌륭한 자녀와 열다섯 명의 손자 손녀를 두는 축복을 받았다.

**서울 스테이크 <곽채림 기자>**

**청녀 우수 작품 발표회** 지난 2007년 11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서대문 와드에서 서울 스테이크 청녀 우수 작품 발표회

가 열렸다. 청녀들의 솜씨를 감상하고 우정을 나눈 이날 모임에서는 언니에 이어 청녀 메달을 목에 건 서대문 와드 남윤정 자매의 간증을 통해 영적인 시간이 되었다. 또한 2부 순서로 열린 라이브 카페에서는 청소년들의 음식 솜씨와 재능을 엿볼 수 있었다.

**청주 스테이크 <김윤희 기자>**

**여성 대회** 지난 2007년 11월 9일과 10일 양일간, 청주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자매 40여명이 충북 청원군에 소재한 ‘청원효명 온천 스파이스’에서 여성대회를 가졌다. 온천에서 피로를 푼 자매들은 “자녀들과의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고 건강 관리법을 배우는 등 알찬 시간을 가졌다.

**정정합니다**

지난 2007년 12월호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 실렸던 초등학교 어린이 작품 중 박재현 어린이의 성별 표기가 잘못되어 정정합니다. “박재현, 남, 13세”는 “박재현, 여, 13세”의 잘못입니다.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해외 2명/부부 선교사 1쌍**



**전영선 장로**  
강서 스테이크  
신월 와드  
미국 캘리포니아  
샌 페르난도 선교부



**최석현 장로**  
강서 스테이크  
화곡 와드  
캐나다 토론토  
선교부



**권찬태 장로,  
김정애 자매**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  
캐나다 밴쿠버  
선교부